

# 도심주거지에 나타나는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에 대한 고찰

-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을 중심으로 -

심주영\* · 조경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Examination of Urban Gardening as an Everydayness in Urban Residential Area, Haebangchon

Sim, Joo-Young\* · Zoh, Kyung-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urban gardening and garden culture in residential area as an everydayness that has been overlooked during the modern period urbanization and investigates the meaning and value of urban gardening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formations and growth in spontaneous urban residential area, Haebangchon. The result identified that urban gardening as a meaning of contemporary culture is a new clue to improving the urban physical environment and changing the lives and community network of residents. Haebangchon is one of the few remaining spontaneous habitations in Seoul, and was created as a temporary unlicensed shantytown in 1940s. It became the representative habitation for common people in downtown Seoul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60s and the local reform through self-sustaining redevelopment projects during the 70s through the 90s. This area still contains the image of times during the 50s to the 60s, the 70s to the 80s and present, with the percentage of long-term stay residents high. Within this context, the site is divided into third quarters, and the research undertaken by observation and investigation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urban gardening as an everydayness.

It can be said that urban gardening and garden culture in Haebangchon is a unique location culture that has accumulated in the crevices of the physical condition and culture of life. These places are an expression of resident's desires that seeking out nature and gardening as revealed in densely-populated areas and the grounds of practical acting and participating in care and cultivation. It forms a unique, indigenous local landscape as an accumulation of everyday life of residents. Urban gardens in detached home has retained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dwelling and the garden, or 'madang', and takes on the characteristic of public space through the sharing of a public nature as well as semi-private spatial characteristic. Also, urban gardens including small kitchen garden and flowerpots that appear in the narrow streets provide pleasure as a part of nature that blossoms in narrow alley and functions as a public garden for exchanging with neighbors by sharing produce.

---

**Corresponding author:** Joo-Young Sim,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10-8948-0318, E-mail: sophiajsim@gmail.com

This paper provides the concept of 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public area that occurs between outside spaces that are cut off in a modern city.

*Key Words: Garden Culture, Spontaneous Habitations, Pubic-Private Space, Community*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우리의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생적 도심주거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가꾸기의 이해와 장소적 특성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삶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간 관계 형성을 견고하게 하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지인 해방촌(解放村)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지지역으로, 1940년대 후반 도시빈민의 임시 정착지로 형성되었으나 '60년대 주거지 양성화와 '70년대~'90년대 자력 재개발사업에 의한 현지 개량을 거치면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지역은 용산 미군부대와 남산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존재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며 주거지 개발의 붐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다른 도심주거지에 비해 물리적 환경변화가 적고 주민들 역시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거주해온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방촌을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도시 조직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도시정원가꾸기의 특징과 일상문화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서울민의 대중적 삶이 적층되어 있는 해방촌의 도시정원가꾸기는 근·현대 주거사의 변천과 생활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속성으로 변용, 진화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장소는 고밀화 된 주거지에서 발현된 자연-정원에 대한 주민들에 욕망의 표현이며, 가꾸기를 통해 드러나는 참여의 장,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누적된 독특한 일상생활문화로서 지역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와 마당-정원의 원형적 관계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에서 도시정원은 반사적 공간의 공공적 공유가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중층적 공간 구조 사이에서 창조적인 공간 사용을 발견한다. 협소한 대지의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촉발하는 역할로서 마이크로 규모의 녹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은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닿아 있다.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는 사소한 다수가 발휘하는 고유한 역량과 독특한 특성에 대한 재발견으로 일상생활문화로서의 공간 활용과 장소에 내재된 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한다.

*주제어: 정원문화, 자생적 도심주거지, 공공-사적 공간, 커뮤니티*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원은 오랫동안 인류의 거주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상의 장소였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에서도 내부와 외부 자연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세기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등장으로 정원은 공공성과 사회적 민의에 대비되는 유향계급들의 소유적, 배타적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근대시민사회에서 평가 절하되었으며, 효율화 및 경제성을 근거로 자연스레 도시 주거에서 정원 공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감소하였다(Pae, 1998).

우리의 도시 역시 이식된 근대적 사상과 문화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단기간의 급진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일상생활 주거에

서의 정원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아파트 중심의 주거양식 변화는 정원에 대한 논의를 단절시켰으며, 정원은 평창동, 성북동의 서구화된 고급 단독주택에서 한정되게 나타나는 장소로 인식됐다. 이후 편향된 정원에 대한 인식은 아파트 외부 조경의 전시적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거나 서구 정원양식의 모방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개인의 사유화된 공간이라는 속성 때문에 정원은 상대적으로 학문적 연구 영역에서 다뤄질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Cho *et al.*, 2007), 계획분야에서도 정원은 소수를 위한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폐쇄적인 장소로 발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공간의 녹지 조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실마리로 등장하면서 동네정원(community garden)과 텃밭정원(kitchen garden)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했

고, 정원의 공공성과 실천적·참여적인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 꽃으로 피다」와 2011년 1회로 개최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같은 이벤트는 일상생활 문화에서의 정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전의 정원이 관광과 예술의 장소로 주로 인식되었다면, 현대 도시에서의 정원은 '가꾸기 행위'를 통한 '참여'가 중시되는 장소이며 직접 작물을 키워먹는 '생산적 기능의 장소', 푸드 마일리지 줄이는 '대안적 녹지' 및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장소'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생적 도심주거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삶의 장소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를 고찰하고, 장소적 특성을 파악해 본다. 원형적 주거 내·외부 공간의 관계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에서 도시조직·주거건축 형태 변화에 따라 다르게 분화된 도시정원들이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관계를 파악하여,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를 통해 도심주거지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한다. 이는 최근 전면적 철거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기반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도심주거지에서 작은 텃밭을 만들고 정원을 조성하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으며, 개발 중심 혹은 도시적 관점에서 간과되기 쉬운 일상적 정원문화의 육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공간적 범위는 자생적 도심 주거지 해방촌(용산2가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남산의 소월길과 미군부대 사이를 경계로 후암동과 이태원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태원동과는 남산 1호 터널로 가는 8차선 대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후암동과의 경계는 도시 조직과 건물 형태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임의적으로 행정동 경계를 사용했다(Figure 1 참조).

시간적 범위는 문헌을 통해서 추적 가능한 지역 형성시점에서부터 현재(2012년)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했다. 해방촌 일대는 대상지 내에서도 영역별로 개발 유무 및 시점에 따라 필지-길의 형태와 주거건축물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Seo, 2009). 주거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의 유무 및 형태와 주거-길의 관계도 그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도시 조직과 공간의 형태에 따른 주민들 일상의 도시정원가꾸기 양상 역시 달리 나타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했고, 현상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지역관찰 조사 및 주민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지역 관찰 조사는 6개월(2011.07~2011.12)간 주 1회 이상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층인터뷰는 3달(2011.09~11)에 걸쳐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주로 대낮시간 지역에서 도시

정원가꾸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장소적 스토리가 살아있는 10인의 심층 인터뷰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지 조사는 구글, 네이버, 서울 GIS위성지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후 직접 관찰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 II. 이론적 고찰

### 1. 도시정원에 대한 현대적 개념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원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존재해 왔으며, 그 정원 속에서 사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의 행복으로 보았다(Harrison, 2008).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 문화작품에 등장하는 '신들의 정원(Elysium)'은 최초의 지상낙원으로 그려졌으며, 알려진 바와 같이 '파라다이스(Paradise)'는 정원의 어원인 '둘러싸인, 울타리 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거주역사에서 정원은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공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실천적 의미의 정원은 "주거지에 인접하거나 연결되어 가사를 위해 야채와 과일을 기르고, 집이나 정원 자체를 꾸미기 위해 식물과 꽃을 재배하는 일정 규모를 가진 땅의 일부분"이다(Hunt, 2000). 이는 역사가들이 추적해왔던 정원의 원형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헌정된 성스러운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주방과 의약품을 위한 실용적인 유형의 것이다. 앞선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원에서 인류가 추구해 왔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속성은 미학적 관점에서의 의식, 사고, 감정, 주장에 대한 표현이며, 실용적인 쓰임을 위한 의식주와 관련된 장소였다(Benoist-Méchin, 2005).



Figure 1. Spatial area of research: Yongsan-gu Yongsandong 2ga, Haebangchon  
Source: Drawn by author

서구 정원역사가·이론가들은 정원의 내재적 의미를 인간의 조건으로도 파악하였는데, 즉 우리가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는 소양을 배양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고찰한 것이다. 로버트 포그 해리슨(Robert Pogue Harrison)은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여 인류가 모두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함의 의미를 서양철학·문학사를 통틀어 기술하였다(Harrison, 2008). 근대사 이전의 정원이 어원적 속성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장소 중심의 공간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장소보다는 자연과 문화적 관계 맥락 속에서 다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특정한 가치로 인식된다. 종종 정원은 야생지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비유하는데 온전한 의미의 야생지가 사라져버린 오늘날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하며(Pollan, 2009), 야생 자연과 만나는 일차적인 장소로서 울타리를 치고 경작을 하는 합목적적인 행위를 통해 문화적 산물로 거듭난 장소로도 정의된다(Sung, 2011).

19세기 유럽의 도시에서 공원이 문화화 된 자연을 재현하는 장으로 등장하면서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시대를 이끌었다면,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은 20세기 말 새롭게 사회의 변화에 반응하며 조경의 이론과 실천 영역에서 재조명되는 흐름으로 등장하였다(Davey, 1989). 이러한 '정원의 부활'은 전통적인 이원론의 구조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이의 중간 지대'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탈구조주의적 조류의 일환이며(Zoh, 1997), 도시농업에서 드러나는 참여와 노동에 대한 가치 전환(Ahn, 2012), 일상생활과 소박한 장소에 대한 가치 인식(Miller, 1993) 등의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의 현대 도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정의 할 수 있는 도시정원의 속성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a)정원에서 경계는 기원적 속성이며, 동시에 인간의 개인적 욕망과 창조적 욕구의 산물이다(Helphand, 1990). 이 경계는 타인과는 공유할 수 없는 개인적 내밀의 공간을 한정하는 선이다. 자끄 브누아 메상(Jacques Benoist-Méchin)은 "정원의 창조는 바로 여가에 의해 얻게 되는 최고의 표현"임을 지적하며, 개인의 표현의 욕망이 강할 때 만들어낸 창조적 여가의 산물임을 강조한다(Benoist-Méchin, 2005).

또한, (b)정원은 '가꾸는 일, 경작(Cultivating)'이며, '돌봄(Care)'을 통한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자연과 문화의 중간 지대에서 끊임없이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며, 자연의 섭리를 몸으로 익히고 자신의 삶 역시 가꾸어 나간다(Sung, 201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원사로서 인간은 자신이 가꾸는 한 뼉의 땅에서부터 지구 전체로 관계를 확장하고, 사고와 인식의 폭을 넓힌다(Harrison, 2008).

(c)정원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은 정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동시대 사람들의 문화적 이해와 가치가 반영되는 장소로 복

합적 문화의 구성체이다(Francis and Hester, 1990). 이로서 정원은 자연과 문화, 환경, 예술이 합작된 문화적 자연으로서 '제 3의 자연(una terza natura)'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Hunt, 2000). 현대 도시에서 정원은 자연과 서로 대립항이 아니며, 자연과 문화 역시 상반된 것이라는 타성적인 인식-인공적인 것은 자연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Pollan, 2009).

(d)현대의 도시정원은 근대 모더니티의 이원론적 관점이 분리시켰던 정원과 농업의 관계에 대한 원형적 회복이다. 경험의 대상에서 경험의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적인 공간으로 재발견됨으로서, 참여의 미적 장이자 도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배경으로 위치하게 되었다(Pae, 2004). 일상생활 경관의 정원에서 농업적 생산이 분리되면서 배제되었던 노동과 참여는 최근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현상을 이해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 2.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

본 연구에서는 도심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정원 지향적인 소소한 현상들을 모두 아울러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로 포괄함으로써 기존의 형태, 현상 중심으로 이해해오던 정원의 대상을 행위와 의미 중심의 것으로까지 확장시킨다. 개인의 마당, 주거지 골목길, 작은 공터 등에서 나타나는 '화분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의 일련의 행위와 현상들을 모두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로 정의하며, 이러한 사고의 바탕에는 일상성, 일상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 및 공유가 요구된다.

일상생활사 연구는 선행적 이론도식으로 현상을 재단해 온 담론 중심, 이론 연구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한다. "인간의 의식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의식을 결정한다"고 역설해 온 20세기 초의 일상생활 사회학자들은 실존된 '구체적 삶'을 복원하는 것을 통해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를 진단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Park, 2008).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은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현실'이며 그 미시적 삶은 사회 전체 수준에서는 매일 되풀이되는 '구체적 사회과정'의 동태에 대한 탐색이므로 소외된 역사적 현장에 대한 재인식이다.

도시정원가꾸기로 파악하는 일상생활문화 역시 기존 질서에 따르면서도 내부적인 변형에 의해 일상적 투쟁과 저항을 실천하는 미시사적 대중문화로 파악할 수 있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기존체계, 고급문화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대중문화가 확장되는 논의의 가장 기저에 일상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일상은 모순과 불투명성을 지니며 이론적 체계화가 어렵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적 잠재력으로 충만한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규범과 논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무쌍한 시공간에서 대중은 기존의 체계모니와 지배 권력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 일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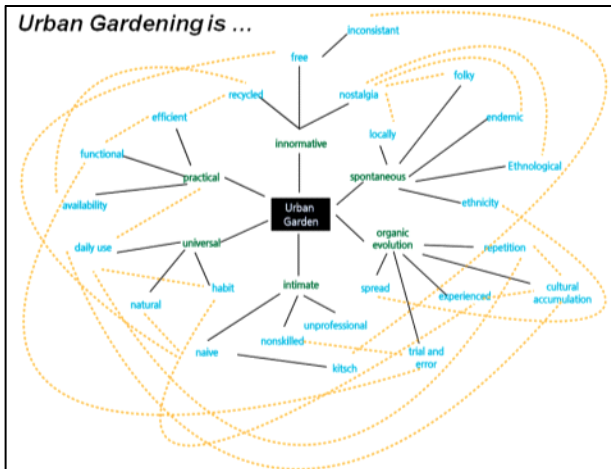


Figure 2. The concept of urban gardening  
Source: Drawn by author

문화를 형성하고, 일상의 수많은 층위와 구획, 관계망으로 얽혀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Jang, 2002).

한편, 일상은 늘 있는 생활의 시공간이지만 확대하면 지역과 장소에서 지속되고 축적되어온 문화와 가치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를 건축 및 디자인, 조경에서 통용되고 있는 버나쿨러(Vernacular)의 속성과 연관시켜 고찰해 본다면, ‘토속적, 풍토적’인 의미에 더하여 의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은 인간 본연의 심성에 의한 것, 수천 년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Hunt and Joachim, 1990).

도심주거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일상생활사 속의 정원 지향적 공간 활용을 도시정원(Urban Garden)으로 지칭하고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의 특성을 정의한다면, ‘도시 곳곳의 일상에서 비전문가 혹은 지역의 일반적인 주민들에 의해 가꾸지고 공유되는 정원 공간으로, 지역의 고유한 식물 소재와 재료 등을 이용하여 조성되며 자유로운 형식과 친근한 형태,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서, 결과보다는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여가로서의 활동이자 교육, 건강, 환경,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도심 주거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도시정원가꾸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주된 관점은 정원 지향적 공간이 나타나고 있는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정원에서 일어나는 행위 간의 네트워크이다(Figure 2 참조).

### III. 해방촌 도시정원가꾸기의 인문사회적 고찰

#### 1. 지역 형성의 역사적 변천

해방촌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산자락에 위치한 인가가 드문 솔밭이었으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는 조선시대 역원 중 하나인 이태원(梨泰院)이 있어 도성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했다. 이후 지금의 용산 지역에 일본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이태원과 후암동을 중심으로 일대가 시가화되었고, 일본 주둔군과 가족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해방촌은 구릉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군사기지 및 남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해방 후까지도 개발과는 동떨어진 지역으로 남아있었다(Seo, 2009). 1940년대 후반, 이 일대에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유사한 도시 조직의 골격이 나타났다. 구릉지 정상에 집을 마련한 주민들은 도심으로 가기 위해 주거지와 비슷한 표고의 길을 따라 걸어 다녔고, 주요 가로를 따라 중심상업시설인 신흥시장이 형성되면서 해방촌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해방촌이 조성되었다. 해방촌은 다른 천막촌과는 다르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거지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는 지역의 대부분이 국유지·시유지였다. 이는 점과 상수도 역할을 하는 남산샘물이 있어 도로와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후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개선된 점 때문이었다(Kim, 2001). 또한 이 지역은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착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이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의한 주거환경 안정화, 공공 인프라의 확충, 신흥시장 중심의 상업기능이 더해져 도심 주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Shim, 2004).

1960년대부터는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안정된 도심 주거지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대부분의 무허가 판자촌이 토지정리 사업을 통해 유기적 형태의 도시조직에서 격자형 필지로 구획, 정리되었다. 지역의 외곽으로는 남산 순환도로(1963년)와 남산 제2호 터널(1970년), 3호 터널(1978년)이 건설되면서 해방촌의 물리적인 경계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태원 쪽으로의 면적 확대가 불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고밀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1973년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해방촌에 처음으로 공공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주요 가로는 유지하고 각 블록의 필지구조는 주민들의 합의와 공무원들이 조율하여 새로 계획했다. 불규칙적이었던 블록은 정형화되었고, 유기적인 가로망은 확폭 및 신규 개설을 통해 연결성을 높이면서 변형된 격자망의 형상을 갖추었다(Seo, 2009).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현지개발방식에 의한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방촌 일대 절반 지역들의 주거기능이 강화되고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이후에는 산발적으로 도로포장,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공공에 의한 정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개별필지 단위로 토지소유자들의 재건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블록이나, 가로망, 필지구조는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인문·사회적 배경과 변화상

초기 정착민 가운데 월남민들의 비율이 높았던 해방촌은 당시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종교, 교육, 경제 공동체로서 자립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1948년 당시 해방촌 거주민의 수는 3천 5백여 세대, 약 2만 5천명이라고 기록한다. 이들에게 해방촌은 경제적으로 싼값에 주거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심리적으로 혈연의 공백을 자연의 정으로 채워주는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중반까지도 월남피난민들의 전입이 끊이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이촌향도시대인 1970년대 해방촌은 이미 포화상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전입률이 낮은 편이었다(Kwon, 2008). 80년대 초반까지도 해방촌은 여전히 고밀 주거지역으로 약 4천 5백 세대 가운데 2천여 세대가 월남민들이었다. 이들은 해방교회를 중심으로서 형성된 공동체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3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50%에 달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각종 소모임과 부녀회 조직이 구성되어 이를 뒷받침했다.

해방촌에는 6천 1백 세대, 1만 3천 여 명(2011년 인구통계 기준)이 거주한다.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495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80년대 중·후반 재개발 시기에 자력으로 주택을 짓고 거주한 이들과 그들의 2~3세대들로 향후 계속해서 지역에 거주할 의사를 밝혔다. 이미 지역사회에 깊게 흡수되어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Lee, 2000).

## 3. 해방촌 도시정원가꾸기의 이해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주거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조직을 형성하는 가로, 블록, 필지가 변모하였고,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삶도 그에 맞춰 변화하기 마련이다(Jun, 2010).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의 도시정원가꾸기 현상들이 분화하였는데, 전통적 정원의 개념과는 상이하지만 일상적 삶의 단편에서 포착되는 현대적 개념의 도시정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해방촌은 폐쇄적 지역구조로 인하여 변화, 발전의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지역 형성 초기의 전통적 삶의 방식과 풍경이 남아있는 장소이다(Jun *et al.*, 2008). 이는 도시속의 섬처럼 존재하게 된 지리적 특성에서도 기인하지만, 70~80년대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폐쇄적인 성향을 띄었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물리적 변화와 폐쇄적인 지역의 접근성은 지역의 더딘 변화를 초래하여, 해방촌 주민들의

삶에는 여전히 옛 방식의 토착적이고, 토속적인 정겨운 풍경들이 남아있다(Kang and Joo, 2002). 플라스틱 화분에 식물을 키우고 마당 한 구석에 텃밭을 만드는 일들은 일종의 '반찬거리'들로 생활의 결과물이며, 때로는 지극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에 가해진 작은 사치이다.

지역의 태생적 배경에서 태동한 지역민의 장소 애착성은 개인의 공간에 도시정원가꾸기로 투영되었다(Jun *et al.*, 2009). 정원을 가꾸고 소유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는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의 실현과 닿아 있다. 해방촌에 정착했던 1세대 월남민들에게 이 장소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던 것은, 당시 열악한 환경의 서민 주거지가 빈곤한 삶과 피폐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게 하는 임시 거처였으나 동시에 망향의 슬픔을 견디고 동류의 사람들로 부터 위안 받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초기 정착민들의 견고한 집단성은 임시 정착지였던 해방촌을 도심 주거지로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주거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가져왔다. 해방촌을 자신의 고향이자 아늑한 주거지로 견고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와 1인당 4~5m<sup>2</sup>의 작은 집이지만 유일하게 자신이 소유하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드러난 것이다.

주거지 고밀화에 따라 녹지 환경이 줄어들면서, 도리어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자연성을 회구하고 정원 공간의 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독주택 지붕의 곳곳에는 여지없이 옥상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가로수 한 그루 심을 곳 없이 빼곡하게 들어 찬 주택지와 가로 폭 2~5m의 좁은 골목길에 비하면 남쪽 사면으로 늘어 선 주택의 옥상은 주거지의 이상적인 마당 겸 정원이 된다. 후암동에서 이태원까지 나대지였던 일대가 초고밀도 주거지로 변화하는 가운데 녹지가 사라지고 삭막하고 허름한 주거공간에서 사람들은 다시 자연을 회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열망은 남산이라는 풍부한 녹지를 지척에 두고도, 자신의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과 연결되어 자유롭고 길들여지지 않은 키치적이고 대중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현대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진화하여 지역의 녹지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경관적으로도 독특한 장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이상적 환경을 위한 통일된 집단의 목표와 욕망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버니컬러 정원과도 상통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Jeon *et al.*, 2012).

해방촌의 견고한 지역 공동체에서 기인하는 내부 개방적 구조는 가로 문화와 골목길 정원을 만들었다. 해방촌은 지역적으로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견고한 지역 공동체 속에서 개방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Lim, 2011). 특히 초기 정착기 월남민들의 집단의식과 교회를 중심으로한 종교 공동체의 활동은 지역민의 결속을 다지며, 마을단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마당의 개념으로 가로를 공유하고 골목

길 정원을 만들었다. 마당이 없는 대신 골목, 가로로 공유하는 방식은 서울의 구도심 단독주택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풍경이지만, 해방촌에서는 오랜 세월을 공유해온 지역 주민들 간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서로의 텃밭을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는 등 공동체 안에서 장소를 공유하고 주거의 범위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 정원, 가로 정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적이고, 노동이 수반되는 작은 도시정원을 가꾸는 일은 도시정원이 경험의 대상에서 경험의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적인 공간으로 재발견되는 과정과 닿아있는 지점이다. 이러한 내부 개방적인 성격은 도시정원의 공유, 확장으로 나타났는데 신도시개발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반면에 폐쇄적인 구조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IV. 도시정원가꾸기의 공간적 특성 고찰

#### 1. 분석의 틀 및 유형화

도시정원으로 관찰되는 대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들을 유형화 했다. 정원 지향적 공간의 외형적 특성을 (1)기능과 (2)물리적 형태로 파악하고, (3)공간의 점유, 혹은 소유 방식에 따라 공적(public)인 영역에서 사적(private)인 영역까지 5가지 체계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했다. 관찰 대상의 범위는 가로와 주택의 외부공간으로 한정했고,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다. 특히 화분군집들의 가변적인 것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장소에서 기능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작물이나 초화류가 자라고 있는 것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기능은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1차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도시농업의 일환인 (1-1)실용적 기능과 정원의 전통적 기능인 완상 중심의 (1-2)심미적 기능으로 구분했다. 물리적 형태는 화분이나 상자들의 군집으로 (2-1)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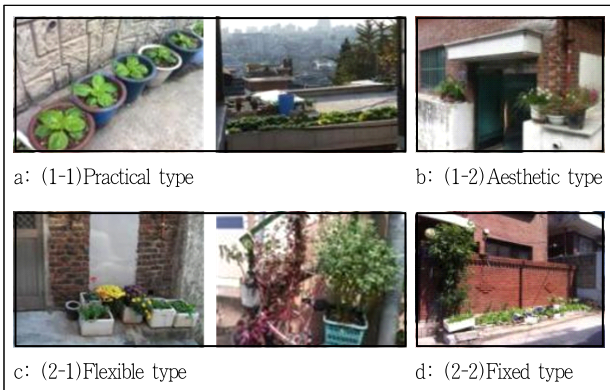


Figure 3. Classification of urban garden in function and form  
Source: © Sim, Joo-young

(3-1) Public					
(3-2) Semi-public					
(3-3) Shared place					
(3-4) Semi-private		Terrace	Porch		Vacant lot
(3-5) Private	Roof	Balcony	Yard	Wall	Road
	Inner space		-	Exterior space	

Figure 4. Classification of urban garden in spatial feature

나는 것과 지면의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조성되는 (2-2)고착화된 것으로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성격에서는 정원을 조성, 활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위와 활동, 관계방식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주택의 외부공간과 가로의 관계에 따라 (3-1)공공영역, (3-2)준공공영역, (3-3)공유 혹은 매개영역, (3-4)준사적영역, (3-5)사적영역으로 나누었다(Figure 3, Figure 4 참조).

#### 2. 도시정원가꾸기의 공간적 특성

해방촌은 자연발생적 가로체계와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 조밀한 구성에 의하여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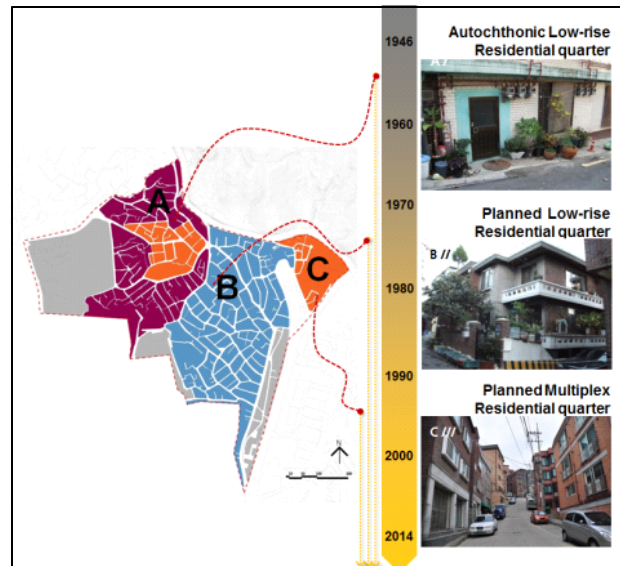


Figure 5. Zoning through analyzing the urban transition and spatial structure  
Source: Drawn by author

며, 개발 시기에 따라 구역별로 도시조직 및 주거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가로 스케일과 공간의 활용, 주택 형태에 따른 마당의 유/무 및 가로와의 관계에 따라서 정원 지향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형태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주요 가로와 시기별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 권역의 변화상에 따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했다. 이들 권역을 바탕으로 공간적 특성과 분포 경향을 분석했다(Figure 5 참조).

으로 하는 실용형(Practical type)과 장식, 가꾸기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는 심미형(Aesthetic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지에서의 관찰조사 결과 실용형이 361개소, 심미형이 625개소로 각각 37%, 63%의 비율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관찰 조사 당시 채소상자와 텃밭 등 경제적, 실용적 목적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식적, 심미적 기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로는 지면을 활용한 실용형이 권역A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권역B에서는 심미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공간이용 특성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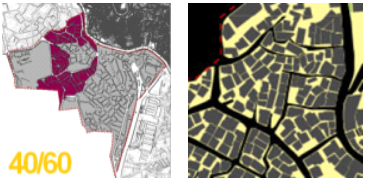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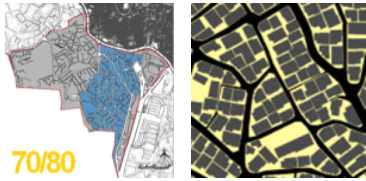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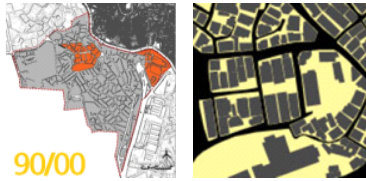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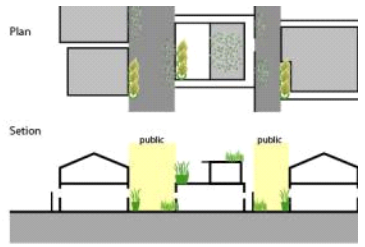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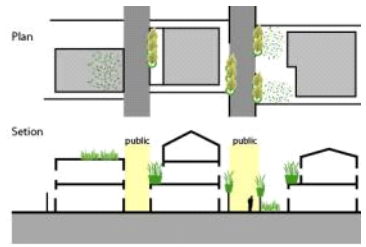
(1) 기능적 특성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의 기능은 채소 재배 등을 목적

(2) 형태적 특성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원 지향적 공간의 활용은 고밀화, 집적화된 주거공간에서 공간의 혼용과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좁은 마당과 가로 공간에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최소

Table 1. Characteristics of urban garden through analyzing the urban transition and spatial structure

	A: Autochthonic low-rise residential quarter	B: Planned low-rise residential quarter	C: Planned multiplex residential quarter
Zoning			
Urban tissue and 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ontaneous Street structure and 1~4m width pedestrian friendly</li> <li>Automobile-proof but low street ratio</li> <li>20~60m<sup>2</sup> land parcel area and indeterminate land pattern</li> <li>Human scale and affinity, assessment of openness in an alle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rganized street structure and 4~8m width, 1~2 lane automobile-proof</li> <li>100~200m<sup>2</sup> land parcel area</li> <li>Intensive space planning and a fenced-off yard with wall</li> <li>Expansion of space sense and improvement of public character in the stree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tension of street width, 8~10m and 2~3 lane automobile-proof</li> <li>100~200m<sup>2</sup> land parcel area united lots</li> <li>Disappeared exterior space of each unit in multiplex type housing</li> <li>Urbanization and large-scaled street</li> </ul>
Archit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mple structure and form, a linear space structure(ex. inner space - door - street)</li> <li>No concept of exterior space</li> <li>Multi use of roofto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versification of housing style and form, differentiation of space</li> <li>Division of interior and exterior space with wall in housing</li> <li>Reinforcement of private territo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ultiplex type housing, high density and intensive space use</li> <li>No exterior space like an yard in housing</li> <li>Simple space structure and extension of horizontal-vertical unit in a building</li> </ul>
Urban garden	Diagram		
	Spat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orm of private garden occupied by public street and area, so living space expanded the alley</li> <li>Efficient use of small-scaled vacant lo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rban garden space is limited to private ownership</li> <li>Diversification of urban garden due to space and availability</li> <li>Creative space consumption and potential</li> </ul>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unization of private garden, Use of public resource neighborhood</li> <li>Productive and practical gard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tensification of aesthetics, and visibility</li> <li>Participation and engagement of garden attributes</li> </ul>



한의 면적을 차지하는 가변형(Flexible type)을 활용하는 사례가 76%(745개소)로, 지면의 고착형(Fixed type) 사례(21%, 211개소)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면을 활용한 유형에는 주택의 옥상 정원과 시설 구조물을 이용한 사례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해방촌에서 자연 지반에 조성된 도시정원의 비율은 더 적다.

(3) 공간 점유, 소유방식별 분포 경향

전통적으로 정원은 사적 소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길, 가로 등의 공공 영역에서의 점유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가로의 공공영역(Public space)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20%(193개소)로, 옥상정원이나 테라스 등의 외부의 접근이 불가능한 사적영역(Private space)의 33%(327개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로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생활관이 반영된 것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주거생활 공간이 거리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마당이 사라진 주거공간에서 마당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장소는 주택 외부의 테라스, 외부계단 하부 등의 공간과 담장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장소들로서 공간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쓰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권역별 분포 특성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시대별로 변화해온 지역의 도시조직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과 물리적 공간의 조건에 따라 주민들이 적응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정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로 도시조직과 주택의 형태가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로 및 필지 변화에 따라서 틈새공간의 활용과 건축물 외부를 변형 혹은 변용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상에 따른 주택의 형태 역시 도시정원의 구성에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원이 공간속에서 주민의 생활상이 밀접하게 반영되어 나타남으로 당시의 일상에서 정원을 만들고, 가꾸던 삶의 일상을 추적해 볼 수 있다(Table 1 참조).

(1) 권역A: 자생적 저층주거지(형성초기~70년대)

권역A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에 대한 개방성과 적극적인 가로의 활용이다. 필지 간 담장과 마당이 없이 주택에서 직접 가로로 연결되는 단순한 구조로, 주택 내부의 사적인 공간과 가로의 공공 공간 사이를 연계하는 매개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이를 위한 장치로서 일종의 정원을 선택한 셈이다. 둘째, 평슬라브형 주택 내지는 건물의 옥상을 개인 마당으로 활용하는 옥상정원의 조성이다. 평균 50~60m<sup>2</sup> 이내 규모인 옥상을 개인의 텃밭



Figure 6. Garden-oriented area in public space  
Source: © Sim, Joo-young

및 화단으로 조성했으며, 장독대와 빨래 건조대 등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마당으로 활용한다. 해방촌의 옥상정원은 협소한 공간에 대한 대안적인 장소이자, 넉넉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정원인 셈이다. 셋째, 틈새·사이 공간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공간의 효율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부정형의 필지와 구불구불한 가로 공간의 틈새, 건물과 건물이 만나는 모서리 등 유기적 조직과 정방형의 건축물이 만나면서 생성된 비틀린 공간, 잉여의 공간들이 모두 도시정원의 장소이다(Figure 6 참조).

(2) 권역B: 재개발 저층주거지(70년대 말~80년대)

권역B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내부의 사적 영역성 강화가 두드러진다. 비교적 완결된 형태의 근대 도시주택이 등장하는데, 담장을 경계로 주택 내부로의 사적 영역성이 강화되면서 정원은 모두 경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는 당시의 사적 주거공간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고단한 서울살이 가운데 '나의 집'을 갖게 된 주민들은 마당을 가꾸고, 화분을 늘려가며 '나의 집안에 존재하는 나의 정원'을 만들었다. 둘째, 차량통행에 따른 가로공간의 활용이 제한되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정원을 조성했다. 가로공간을 차량 통행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장소를 찾았고, 그 결과 담장과 대문 구조물 상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가변적 형태의 도시정원을 만드는 등의 특징적인 경관이 나타났다. 셋째,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 개량함으로써 각 주택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과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 도시정원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건물 외부로 테라스, 복도가 덧붙여지고 외부 계단이 나타나면서 주택내부와 외부 사이의 공유-매개 공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원 지향적 공간이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7 참조).



Figure 7. Garden-oriented area on edge and in mediated space  
Source: © Sim, Joo-young

(3) 권역C: 다세대다가구 주거지(90년대 후반~200년대)

권역C의 경우는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마당이나 틈새의 공간들이 사라지고, 가로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도시정원 활동들이 사라졌다. 일부 옥상을 활용하여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나는 정도이다. 90년대~2000년대 들어 주거 양식이 공동주택화하면서 본격적인 도시적 생활방식이 나타났다. 단일 필지에 여러 거주민이 모여 살게 되면서 공간의 개인적 사유화가 어려워졌다. 개인의 거주 공간의 범위가 세대 공간 내부로 한정되면서 주거 외부 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원 지향적인 공간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법적 행위 내지는 건축물 소유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되었다. 점차 개인들의 일상정원의 규모는 축소되어 개인의 사적 공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

## V. 일상문화 도시정원가꾸기의 해석

### 1. 도시정원가꾸기의 태동

해방촌 지역 형성 초기의 형태가 남아있는 자생적 저층주거지(권역A)에서 도시정원들은 상당수가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지향한다. 20~60m<sup>2</sup>의 소규모 필지의 공간 활용 측면에 있어 여유 있는 고정된 장소를 찾기 어려웠고, 가변적인 형태의 활용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틈새의 유휴부지로서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장소이거나, 건물의 옥상을 활용한 도시정원가꾸기가 등장하였다. 서민들에게 이러한 유휴부지는 우선적으로 텃밭 내지는 채소 상자를 키우는 공간, 즉 부식조달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아직 남아있는 전 근대적 농촌에서의 생활양식으로 살아온 초기의 정착민들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원의 본래적 속성 가운데서 실용적 쓰임이 우선적으로 발견되어 나타난 것으로, 유럽의 웅장하고 화려한 정원도 시작은 단순히 식량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정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실용적 성격의 도시정원에 의미를 더한다.

초창기 도시정원의 특징은 경계와 공간적 구획이 모호하며, 공적 공간의 사유화와 사적공간의 공유화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2~3m 미만의 세장한 골목길은 주민 공동의 마당이며 정원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마당이 없고 주택과 가로의 일차적 관계로 맺어진 형태의 주거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자생적 저층주거지(권역 A)의 경우에는 이러한 골목길에서의 도시정원이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로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공동체 안에서 '생산물'과 '가꾸기의 행위'를 통해 이웃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며, 참여와 협동을 공유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 2. 도시정원가꾸기의 진화

약 40만m<sup>2</sup>에 이르는 이 지역은 3개의 다른 시간대가 축적되어 나타난다. 70~80년대 「도시개발사업」과 90년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시조직의 변화, 시대별 주거형태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도시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기 자생적 형태의 주거지에서 필지개량 및 자력재개발이 이루어진 권역B에서는 개인의 단위주거공간이 사유화되고 규모가 확장되면서 도리어 집약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의 성격을 띠는 양상이 나타난다. 경계 밖에 위치하던 정원이 마당으로 들어가고, 협소한 마당 정도밖에는 가질 수 없었던 이들의 경우는 담장 위 경계부와 대문 구조물 상부의 공간 등 자신의 경계 언저리에 공간을 활용하는 특징들이 나타난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기능들은 실용적인 형태와 심미적인 형태가 복합되어 있지만, 심미적 기능-가변적 형태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도심 주거지가 경제적 효율성과 공간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권역C에서의 주거양식에 공동주택화는 개인이 점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제한했고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사라져 버렸다. 참여와 공유의 속성, 생산적 기능의 공간 활용이 약화되고, 단순히 장식적이고 미적인 목적이 주로 남게 되었다.

### 3. 도시정원가꾸기의 가치와 의의

도시의 형성과 성장 관점에서 도시정원가꾸기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 본다면, 해방촌은 근대화기를 겪으며 도심주거지로 형성과 진화의 과정을 모두 겪은 자생적인 공간으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근대사 이후의 도시에서의 정원공간의 성장과 진화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다.

첫째,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반사적(semi-private)인 공간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공공의 공유를 통해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 세장한 가로에서 나타나는 작은 텃밭과 화분은 좁은 골목의 자연의 일부로서 즐거움을 선사하며, 생산물을 공유함으로써 이웃과 교류하는 공공 정원의 기능을 하였다. 이는 현대 도시에서 단절된 외부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공적 영역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개념을 제공한다(Figure 8 참조).



Figure 8. Meaning and value of urban gardening

Source: Drawn by author

둘째, 도시정원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중층적인 공간 구조 사이에서 창조적인 공간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부정형 필지와 정형적인 건축의 충돌에 의해서 생겨난 사이, 틈의 공간에서 텃밭을 가꾸고, 경사지 단차에 의한 주택의 옥상, 2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과 담장의 접근성의 용이함이 만드는 담장과 대문 위 공간의 활용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주는 정원으로 도시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경관요소이다.

셋째, 협소한 대지의 효율적 공간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촉발하고, 오래된 도심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원은 마이크로 규모의 녹지 공간 일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VI. 결어

최근 도시정원(Urban Garden)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닿아 있다. 이에 옥상 등의 생활공간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이 일종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재생 및 주민 참여를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통용되어온 관점은 우리의 정원문화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고는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도시정원가꾸기를 우리의 거주 공간, 삶의 장소와 연관시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쉽게 간과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텃밭과 화분가꾸기 등의 행위들을 우리의 보편적인 대중문화로서의 도시정원으로 바라보기 위한 시도로서, 오래된 단독주택지인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로 해석했다.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도처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골목길과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담장 위, 현관 처마 위, 창문틀 위의 화분가꾸기, 옥상정원 등은 협소한 도심주거지 장소의 틈으로 표출되는 돌봄의 장소이자, 실용적인 생산의 공간이며, 공동체 대화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들 사소한 도시정원은 소위 일시적인 정원을 만들도록 하는 근원적인 인간적 욕구 즉, 창조적 표현의 욕구가 드러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정원은 도시화와 공동주택화 하는 도시조직 및 건물양식의 변화로 점점 사라져 가는 경관이며, 전면철거 도시개발의 위기에 놓여있는 서울의 많은 도심주거지에서 소멸되어 버릴 흔적들이다.

일상에 대한 논의는 일상적인 것, 사소한 현상들의 가치와 가능성을 재발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익명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사소한 다수'가 발휘하는 고유한 역량과 독특한 특성이 삶의 전반에서 발현되고 인정받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축적되

고 다시 재생산, 유통되는 시대의 발견이다.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보편적, 대중적인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상의 것들은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적 잠재력으로 충만한 영역이다.

연구를 통해 도심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가꾸기의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이용과 기능적인 특성을 밝혔다. 특히 기존의 도심 주거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개발 지향적인 시각의 대안으로서, 일상의 삶이 적층되어 있는 미세한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찰해 보았다. 국가적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도심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의 기초는 이러한 일상문화의 공간 활용과 장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장소에 내재된 가능성과 가치를 찾는 일이다.

## References

- Ahn, Myung June(2012) Kitchen Garden and Urban Aesthetics, Seoul: Seoul University Publisher.
- 안명준(2012) 텃밭정원 도시미학: 농사일로 가꾸는 도시, 정원일로 즐기는 일상("도시농사와 조경의 공진화"), 서울: 서울대학교
- Benoist-Méchin, Jacques(2005) (L')Homme et ses jardins, Seoul: Renaissance.
- 자끄 브누아-메상(2005) 이봉재 역, 정원의 역사, 서울: 르네상스.
- Cho, Dong-bum, Su-ran Kim and Keun-ho Kim(2007)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 design and dwellers' understanding of garden maintenance in single detached urban dwelling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4(6): 54-65.
- 조동범, 김수란, 김근호(2007) 도시 단독주택 정원의 공간적 특징과 유지·관리에서 보이는 거주자의 정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6): 54-65.
- Davey, Peter(1989) The rebirth of the garden, Architectural Review (Sep): 31.
- Francis, Mark and Jr. Randolph T. Hester(1990) The Garden as Idea, Place and Action, The Meaning of Gardens, Mass.: The MIT Press.
- Harrison, Robert Pogue(2008) Gardens-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lphand, Kenneth(1990) Francis and Hester(editors), "Personal Expression," The Meaning of Gardens, Mass.: The MIT Press.
- Hunt, John Dixon and Joachim Wolschke-Bulmahn(1990) The Vernacular Garden, Washington: Dumbarton Oaks.
- Hunt, John Dixon(2000) Greater Perfection: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 London: Thames & Hudson.
- Jang, Se-yong(2002) Michel de Certeau on everyday life and popular culture, The Western History Review 82: 205-238.
- 장세룡(2002) 미셸 드 세르투의 일상과 대중문화, 서양사론 82: 205-238.
- Jeon, Sang-in and Mi-young Kim(2012) Sociology of the Rooftop, Seoul: AURI.
- 전상인, 김미영(2012) 옥상의 공간사회학, 서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Jun, Nam-il(2010) Spatial History of Korean Housing, Seoul: Dolbegae Publisher.
- 전남일(2010) 한국 주거의 공간사, 서울: 돌베개.
- Jun, Nam-il, Se-kwan Son, Se-hwa Yang and Hyung-ok Hong(2008) Social History of Korean Housing, Seoul: Dolbegae Publisher.
- 전남일, 손세관, 양세화, 홍형옥(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서울: 돌베개.
- Jun, Nam-il, Se-Hwa Yang and Hyung-ok Hong(2009) Micro-history of Korean Housing, Seoul: Dolbegae Publisher.
- 전남일, 양세화, 홍형옥(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서울: 돌베개.

15. Kang, Hong-bin and Moun-g-duck Joo(2002) Seoul Eassy: Cityscape of Modernization. Seoul: Youlhwadang Publisher.  
강홍빈, 주명덕(2002) 서울에세이: 근대화의 도시풍경. 강홍빈과 주명덕이 함께 하는 서울기행. 서울: 열화당.
16. Kim, Jung-dong(2001) A Trip of City with the Literature-from Mujeong to Namok. Seoul: Old today Publisher.  
김정동(2001), 문학속 우리도시기행-〈무정〉에서〈나목〉까지. 서울: 옛 오늘.
17. Kwon, Ki-bong(2008) To Meet the Disappearing History with Walking in Seoul. Seoul:(Co) Alma Publisher.  
권기봉(2008)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서울: (주)알마.
18. Lee, Sin-chul(2000) Astudy on 'Haebang-Chon' Yongsan 2-ga dong: A village of people coming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14: 83-116.  
이신철(2000) 월남인 마을 '해방촌(용산2가동) 연구-공동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4: 83-116.
19. Lim, Chang-bok(2011) Korean Housing: History of Pattern and Changes. Seoul: Dolbegae Publisher.  
임창복(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서울: 돌베개.
20. Miller, Mara(1993) The Garden as an Ar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1. Pae, Jeong Hann(1998) Environmental aesthetics as a landscape architectural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5(4): 89-106.  
배정환(1998) 조경이론으로서의 환경미학. 환경조경학회지 25(4): 89-106.
22. Pae, Jeong Hann(2004) Theory and Critical Practice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Landscape Publisher.  
배정환(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조경.
23. Park, Jae-Hwan(2008)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Everyday Life. Seoul: Hanul Academy.  
박재환(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한올아카데미.
24. Pollan, Michael(2009) Second Nature. Seoul: Taurus Publisher.  
마이클 폴란(2009) 이순우(역), 세컨 네이처. 서울: 황소자리.
25. Seo, Sun-young(2009) Sustainable physical elements of Hae-bang - chon, Urban Design 11(2): 109-122.  
서선영(2009) 해방촌의 지속가능한 물리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2): 109-122.
26. Sung, Jong-Sang(2011) Dream of green roof: Poetics of roof garden. Rediscovery of Roof-Garden: Seoul University Symposium  
성종상(2011) 초록지붕의 꿈-옥상정원의 시학. 옥상정원의 재발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옥상정원 심포지움.
27. Shim, Seng-Hoe(2004) Seoul: A Space Remembered History. Seoul: Nano Media Publisher.  
심승희(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28. Zoh, Kyung-Jin(1994) Re-inventing Gardens: A Study in Garden Theor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29. Zoh, Kyung-Jin(1997) Landscape architecture: For the new possibilities. Leesang Architecture June: 151.  
조경진(1997) 조경건축: 그 새로운 가능성을 위하여. 이상건축 6월호: 151.

---

Received : 20 November, 2014

Revised : 2 January, 2015 (1st)

2 February, 2015 (2nd)

Accepted : 2 February, 2015

3인익명 심사필